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수세인트마리
파견대학	알고마	기간	3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은 토론토에서 약 한시간반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하는 조용한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의 규모는 큰편은 아니지만 학교의 시설은 깨끗하고 좋은 편입니다. 학교의 규모가 아주 큰 편은 아니어서 학교에서 생활하다보면 같은 친구들을 자주 마주치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정말 착하고 정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걸어서 다녔는데 길을 가면서 모르는 사람을 마주쳐도 웃으면서 인사를 할 정도로 정말 정이 넘치는 동네입니다.
수업	수업은 리스닝, 리딩, 문법, 말하기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업은 학생들의 수가 적어서 였는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이었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초반에 바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테스트를 보고 2개의 반으로 분반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업을 분반해서 수업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과목만 분반하여 수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내용도 문법수업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른 수업에서는 대부분 같았습니다. 수업을 진행해주시는 분들도 전체적으로 매우 좋으셨습니다. 저는 특히 문법교수님이 정말 재밌어서 열심히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특별한 과제는 없었으며 과제를 주셔도 필수가 아닌 선택의 과제들이었습니다. 모든 수업에서 모든 교수님들이 항상 강조하신 것은 'No stress'였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이 절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수업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덕분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잘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법수업에서 3번의 시험이 있었지만 이것 또한 같은 시험형태로 2번을 볼 수 있어서 부담없이 수업을 듣고 시험볼 수 있었습니다.
Activity	수업이외에 정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알파카농장 체험, 개썰매, 하키경기 관람, 스케이트, 자원봉사(초등학교, 요양원 등) 등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으며 날씨가 정말 춥기 때문에 따뜻한 옷은 필수이며 개인적으로 스노우슈즈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는 거의 항상 영하입니다. 평소에는 영하 0~10라고 했었는데 제가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특히 더 추워서 영하 20~30에서 계속 생활하였습니다. 현지분들도 정말 추운 날씨라고 할 정도로 추운날씨였습니다.
안전	현지의 안전은 정말 좋은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네가 정말 작은 편이고 정이 넘치는 동네라서 특별한 범죄가 절대 안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추위에 대한 안전은 잘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O) 외부 숙소() 기타() 저는 홈스테이에서 생활하였는데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 매우 활발했습니다. 집에서 제시하는 규칙이 있었는데 이 규칙들은 제가 생활하는데 편리하고 도움이 되려고 있는 규칙이지 불편함을 주려고 있는 규칙이 아니여서 매우 잘 지내고 왔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O) 외부식당 () 기타() 저는 저녁마다 제가 외식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항상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는 당연히 한국에서 먹는 음식 스타일과 다릅니다. 정말 맛있을 때도 있고 약간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교통	저는 운이 좋게 홈스테이 집에서 걸어다녔습니다. 보통 다른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저는 걸어서 5분이라 정말 좋았습니다. 현지 동네는 시골마을이라 교통편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네가 작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기 정말 쉽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약225만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약 175만원	출국 전 사전 납부
환전	약 50만원	외식비, 기념품 등
합계	225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판견전에 반드시 알아야할 점은 정말 춥다는 것입니다. 현지가 항상 영하30은 아니지만 아마 3주동안 생활하면서 몇일은 영하30도를 경험할 것입니다. 정말 따뜻한 옷을 준비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키복 같은 것은 있으면 좋지만 현지 홈스테이 분들이 정말 정이 넘치시고 가지고 계신 것들도 있어서 빌려주시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저는 제꺼 챙겨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스노우슈즈는 개인 것을 준비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홈스테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이 안 맞으면 없는 건데 현지는 정말 매일매일 눈이 옵니다. 발이 정말 시럽고 눈이 항상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일반 신발을 신으면 신발안으로 눈이 많이 들어갈겁니다. 그리고 안 쌓일 것 같은 눈이 와도 항상 쌓입니다. 3주동안 얼마나 신으까 하고 가져온 스노우슈즈를 3주동안 2~3일 빼고 매일 신고 다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는거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컵라면이나 컵밥 챙기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식을 안가리는 편인데도 약간 질리고 한국음식 생각이 은근 났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캐나다에서 정말 많은 생각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3주동안 영어실력을 늘리는 것은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영어실력이 안 느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실력도 약간 늘고 문법실력도 약간 향상된 것 같습니다. 특히 스피킹부분에서 제가 정확하고 올바르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로 말하는 자신감은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와서 했던 봉사활동이 정말 좋았습니다. 현지에 와서 봉사활동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현지에서 은근 많은 시간동안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은 제가 남을 도와주고 문화적인 교류를 하는 시간인데 저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제가 더 좋은 감정을 느끼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했고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했던 여러 가지 겨울 액티비티 역시 정말 좋았습니다. 개썰매는 현지분들도 쉽게 할 수 없는 활동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경험들까지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 생활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다. 한국에서도 남의 집에서 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언어를 생활하는 나라에서 홈스테이를 했다는 것은 정말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명의 남자아이들과 아빠, 엄마랑 같이 지냈는데 정말 현실적인 육아집안에서 생활했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말을 안들을 나이여서 저녁식사를 하다가도 말을 안듣고 혼나서 분위기가 싸해지기도 하지만 아이들과 카드게임하고 공놀이하면서 즐거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더 밝고 활발한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방이 따로 있어서 제가 개인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는 항상 언제든지 조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홈스테이 아이들과 찍은 사진



홈스테이 집 사진



봉사활동 사진



공항도착 사진



봉사활동 사진



스키장 사진